

에베소서 2(Part 1)

Shall we turn in our Bibles now to Ephesians, the second chapter.

Paul is going to talk about someone tonight...very interesting. You! Well, at least you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For many of you it is your favorite subject. If we were able to take a wide angle lens picture of the service this evening and posted it on the bulletin board, and you went up to look at that picture, who is the first one you would look for? Of course.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오늘 밤에 어떤 사람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주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신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오늘 저녁 예배를 넓은 각도의 카메라 렌즈로 찍어서 그것을 게시판에 붙인 후에 그 사진을 보러 간다면, 당신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물론 당신 자신이겠죠.

Paul said. Now notice the words,

hath he quickened (2:1),

Are in italics. What it means is that these words were added by the translators. That they do not appear in the original Greek text in this place. Now, they do appear in the original Greek text down in verse 5, but it does not appear here at the beginning of this text. And so they wrote "hath he quickened" in italics in order to indicate the fact that they themselves added those words. They are not a part of the original text.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유의 하십시오.

살리셨도다 (2:1),

이 말이 *이탤릭 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들 이 번역가들에 의해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말들이 그리스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 이 그리스 성경 원본 5절에 나오지만, 이 본문의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 단어들 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살리셨도다"를 *이탤릭 체*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 은 원본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Evidently it was just a little bit too heavy. The things that Paul has to say about you, so that they tried to sort of cushion the whole blow by giving you a

peak ahead at what he is going to say about you. But at this point, Paul is just saying, and you

결국 그것은 분명히 비중이 너무 컸던것입니다. 바울이 당신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말에 앞서 정점에 다달아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울은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God said to Adam, "In the day that you eat thereof you will surely die." Talking about that forbidden fruit in the Garden of Eden. God was talking about spiritual death. That awareness of God, that communion with God, or that fellowship and oneness that God intended that man should have with God. That would cease, for God is a Spirit, they that worship Him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The relationship with God would cease the moment that man disobeyed the commandment of God, the moment man transgressed. And so "and you who were dead" really as the result of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주님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금지된 실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는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워지기를 시도하신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 즉 죄를 짓는 순간에 중단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의 결과로 "죽었던 너희" 가 되었습니다.

The Greek word for sin, *hamartia*, is a word that means "to miss." Our English word *sin* comes from a root "to miss." In fact, it comes from a game in archery that the British used to have. They would put a hoop on a pole, and each man would take his quiver of arrows and shoot his arrows through the hoop one at a time. And so maybe you would have five men in the contest. Each of them with ten arrows, and one after another they would shoot their arrow through the hoop there at the top of the pole. Now, if a man should miss the hoop, then he was called a sinner, you have missed. And he would have to treat the rest of the fellows to the drinks. He was a sinner. He had missed the mark.

그리스 말로 죄 즉 '하말티아'는 '과녁에 빗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죄' 라는 영어라는 단어는 '과녁에 빗 나가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이 단어는

영국에서 있었던 공술대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대에 굴렁쇠를 달고 각 남자 선수들이 전통을 메고 화살을 쏘 굴렁쇠안으로 하나씩 통과하게 합니다. 대회에서 한 팀이 다섯명으로 구성합니다. 한 사람에 열 개의 화살을 가지고 한 사람씩 화살을 쏘 장대 꼭대기에 붙어있는 굴렁쇠를 통과하게 하는 대회입니다. 만일 한 사람의 쏜 화살이 굴렁쇠를 빗나가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우고, 그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술을 사야 합니다. 그는 과녁을 빗나가게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Now, by the very root of the word, it does indicate, which is also true, that it is possible to be a sinner without wanting to be. It is possible that you would be trying very hard to hit the mark. But no matter how hard we may try to hit the mark, none of us have really hit the mark that God has required for man. All have sinned, or missed the mark,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Now, some may have come closer than others.

이렇게 단어의 근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과녁을 맞추려고 대단히 열심히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녁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그 과녁을 맞추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지만 정말 과녁을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기 위한 노력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한 타겟을 아무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고, 타겟에 빗나갔고, 주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까이 왔을수도 있습니다.

If we decided to go sailing out here in the channel and maybe sail to Catalina, but half way across the channel we sprang a leak in the boat and it starts to go down, and some of you who can't swim go down with the boat. Others who are novices at swimming may swim a few feet and then go down. Some who are strong swimmers may swim for a mile or two before they go under. And there may be a marathoner in the group that will get within a mile of the shore before he goes under. Someone may even make it almost to the pier, a hundred feet off of the pier and gulp, gulp, gulp, you know.

만일 우리가 이 해협에서 항해하러 나가서 카타리나까지 항해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간쯤 갔을 때 배에서 물이 새고 가라앉기 시작했을때. 그 중 몇 명은 수영을 못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수영에 초보인 몇몇 다른 사람들은 몇 피트 정도 수영해가지만 결국 가라앉습니다. 그 중 또 몇 명 수영을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은 1 또는 2마일 정도 헤엄치지만 결국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해안가 1마일 내까지 다다라서 가라앉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두에서 약 100피트 떨어진곳까지 와서 물을 꿀꺽 꿀꺽 마시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Now, you have all come short, no one made it. That is what God says about us, you may come closer than others, but we have all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We have all sinned; we have all missed the mark.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That means that we all need help. None of us can make it on our own.

결국, 당신들 모두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왔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고 모두 목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The mark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you is perfection.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Matthew 5:48). Then the scripture says none of you are perfect. Now do you agree with that or not? If you don't, your wife does. All of us have sinned, all of us have missed the mark. Even though we may be trying our best to hit the mark, we've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s the result, the soul that sins shall surely die.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 loss of fellowship with a hol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든 목표는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성경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인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목표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죄를 지은 영혼은 정녕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So, and you who were dead because of your trespasses and sins;

Where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2:2),

당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2:2)

The word *walked* here in Greek is a word that should be translated *meandered*. That is, when you see a person walking you make an assumption he is going someplace and he has a purpose in mind. When you see a person meandering you get the impression he is not really going anywhere and he doesn't have any purpose. He's just sort of wandering, meandering. So this

Greek word *meander* is the word that Paul uses here. It is translated *walk*. But in times past you were just meandering through life. That is, you really didn't have any real eternal purpose. You were really not going anywhere, you were just existing. But there was no real purpose to your life. In times past you meander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The word *course* has its root meaning in Greek *weathervane*. That is, whatever way the wind is flowing, that is the way you turn, that is the way you go. So the flow of the world, you just flowed with it. Whatever was the current fashion. Whatever was the current fad, here I am, flowing with it, you know. Everybody is doing it, get on board.

여기서 단어 “�다”는 “정처없이 거닐었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어디에 가고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처 없이 거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목적이 없이 아무데도 가지않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정처 없이 방황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 단어 “정처없이 다니다”를 여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즉, 우리는 진실로 아무런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아무런 곳으로도 가지않고 그냥 존재하고 있긴하나 거기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세상 풍속을 따라서 정처없이 다녔습니다. “풍속”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바람개비”라는 근원의 뜻을 가졌습니다. 즉, 바람부는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대로 흘러가는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지 세상의 현대유행이 무엇이든지 그와 함께 흘러갑니다. 모두가 그렇게하니 너도 함께 어울려라.

When I was a small fellow I used to often ask my mother if I could go a certain place. Do a certain thing. And if she would say, "No, son, you can't." I would say, "Why, Mom? Everybody is going. Everybody is doing it." And she used to say, "Son,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everybody is doing it or not. If everybody is jumping in the fire, are you going to jump in the fire? As a Christian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to go against the current. Any dead fish can float down the stream, it takes a live fish to swim against the current." I thank God for that good godly advice from my mother.

내가 어렸을 때, 어디에 가서 무얼하려고 하면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곤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아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왜요, 엄마? 모두가 다 가고. 모두가 다 한단 말이에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들아, 모두가 다 하든지 말든지 너는 못해. 만약 모두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면, 너도 불 속으로 뛰어들거니? 크리스찬으로서 너는 요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것을 배워야 한다. 죽은 물고기들은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 흐름에 거슬러 오라간단다.”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좋은 충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In times past we just flowed with the current, the weathervane. As it moved as it meandered. Following the crowd, following the course of the world. Following the fads.

But then Paul gives us an awesome insight, and that is that these fads and fashions of the world are really being directed by none other than Satan.

이전에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람개비처럼 흘러갔었습니다. 군중을 따라, 세상의 풍속대로 유행을 따라 정처 없이 옮겨갔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러한 유행이나 흐름은 바로 사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훌륭한 통찰력을 줍니다.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at even now works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2:2):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Now, there may have been a tim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a person would challenge the fact that Satan is behind the course or the flow of the world. I don't think that that would be challenged much anymore. As we look at the course of this world, as we look at the way things are going, as we look at the latest rock stars, the latest idols, they have become quite obvious of the bondage and the chains, and of the cruelty, and of the evil by which they are inspired.

세상의 역사에서 과거에는 사탄이 이 세상의 흐름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에 도전할 사람이 역사적으로 과거에는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없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최근의 락 스타들이나 아이돌 스타를 보면, 그들은 사슬에 얽매여 있고 잔인하며 사탄의 감동을 받은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In Copenhagen we saw these posters all over town. In fact, I ripped one off and brought it home. I figured it was all right because there were so many around town. I didn't think anybody would miss the one. I really thought it was worthwhile having. I asked the Lord to forgive me. But I ripped off this poster that was there because it was so intriguing. The poster has the picture of a young man, blood all around him, tied with chains, and in big letters, it said, "No escape." That is the message of the young people of Europe today. There is no escape. There is bondage. The world is going down the tube. And there is no escape; that is the world's message to the world.

코펜하겐에서 우리는 이러한 포스터들을 그 도시의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중 하나를 떼어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 전체에는 너무나 많은 포스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 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의 포스터를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정도는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 있던 포스터 중 호기심을 돋우는것을 하나 떼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피가 몸 전체에 묻어있고 체인으로 묶인 젊은 남자의 사진과 큰 글씨로 “탈출구 없음” 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의 메시지입니다. 탈출구가 없이 속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헤어날 길이 없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Paul said, "How sha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They should thank God there is an escape, it has been provided by Jesus Christ. The glorious salvation that He has given to us. But outside of Christ the message is true. To those who want to reject Christ, the message is true; there is no escape. Satan is behind the world's fashions, the trends, directing, orchestrating those destructive, damning forces that we see pervading our society. The increase of immorality, the increase of pornography, the acceptance of abortion, and homosexuality, and these other trends that we see, Satan is behind them orchestrating as he is leading the world to hell. And we at one time were following that cours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living an aimless life without purpose as we follow the trends that were being set by Satan. What a sad and tragic picture of man apart from Jesus Christ.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길이 있는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할길이 없다는 메시지가 진실한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사회에 침투하는 세상의 유행이나 추세나 방향이나 파괴적이며 저주하는 능력을 조종합니다. 부도덕과 음란한 잡지는 증가하고 낙태와 동성애의 허용하는 이와 같은 추세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조절하는것입니다. 우리도 한 때는 허물과 죄로죽었고 세상을 따랐으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추세를 따라갈때 우리는 목적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슬픈 비극인지 모릅니다.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so often people fear the will of God. Having walked in the will of God, I cannot understand why any man would fear it. But Satan has so lied to people about God, about the nature of God, that it has caused people to oftentimes fear submitting their lives to God.

나는 사람들이 빈번히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것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고 그것이 그들로 빈번히 하나님께 복종하는삶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Now,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in church, so many times I would hear people say, "You be careful what you say you are not going to do, because that is exactly what God is going to make you do. The boogiemán will get you, you know." And God was almost a boogiemán to us. Just waiting to prove us wrong. You say you are not going to do something, well, you just wait, you know, the moment you yield your life to God, that is exactly what He is going to make you do. And I was fearful of yielding my life to God. There was a lot of things I didn't want to do. And I was fearful that God was going to suddenly start making me do all of these distasteful things that I said I would never do.

내가 어려서 교회 에서 자랄 때, 나는 사람들이 “너는 네가 하지 않을 행동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말한것을 그대로 하도록 만드실테니까. 너도 알다시피, 부기 맨이너를 찾아 올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거의 부기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틀렸다는것을 증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삶을 그에게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정확히 그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싫어하고 결코 하지 않겠다던 모든일을 다 하도록 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What if my son should come to me, and say, "Dad, I have been thinking, I really had a good life, you have always provided a roof over my head, you have always provided food on the table, I always had clothes to wear. And I really appreciate all that you have given to me, Dad, and all that you have done for me. And to show my appreciation, Dad, I just thought that today I would come over and just do whatever you would like me to do for you. Any task that you may have around here, I just would like to spend a day with you, Dad, doing whatever you'd like for me to do." Now, as a dad, do you think that suddenly I would think, "All right, I have got this kid now where I want him. Boy, I had the worst time with him trying to get him to hoe weeds in the backyard." I would say, "Okay, start out in the back yard, that weed patch back there. When you are through with that, wash out the garbage cans." And you think that I would think of every dirty, miserable task around the house and send him to do them? Well, if you think I would think that, you don't know me. I tell you, I would be so shocked if I had one of my sons come and say something like that to me. But

pleasantly shocked, that I would want to make that one of the greatest days of his life. A day he wants to share with his dad. Well, why don't we head on down to Huntington and let's spend a little while surfing. And then maybe we can do a little water skiing in the afternoon, and I would be looking for those things that we could really enjoy together. I would be so pleased that he is wanting to do something to please me. I would want to make it a great day.

만약 내 아들이 와서 “아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난 행복한 삶을 살았고, 언제나 살 집을 마련해 주셨고,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셨으며, 항상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내게 주신 모든 것과 저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빠,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아빠에게 와서 제게 원하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아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단지 아빠랑 하루를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빠로서 갑자기 생각하기를 “좋아, 내가 하고 싶은대로 이 아이에게 시킬수 있어. 내가 이 아들에게 뒷마당에서 잡초를 캐 내는일을 시키는게 내게 최악의 시간이었어.” 하고 생각할수있습니다. 나는 “좋다, 뒷 마당에 있는 잡초 받부터 시작해라. 일이 다 끝나거든 쓰레기 통도 씻어 놓아라.” 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있는 모든 더럽고 구질구질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글썄,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당신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말하건데, 만약 내 아들 중 하나라도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아주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을 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 중 하나로 만들어 주고 싶으며 그것은 기쁜 충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 하루는 아들이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날입니다. 헌팅턴 비치에 가서 파도를 타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후에 수상 스키를 좀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참으로 즐길수 있는것을 찾아 볼것입니다. 그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무엇하기를 원하는것이 나를 한없이 기쁘게 할것입니다. 나는 그 하루가 정말 훌륭한 하루가 되기를 원할것입니다.

Now, do you think that our Father is any different? Do you think that when you finally come and say, "Father, I do realize You have been good to me, You have done so much for me. You have blessed me so much, I just want to do whatever You like me to do today, Father. I would like to just commit to You." Somehow we have an impression that God is going to just get all of these dirty, nasty things that we have said we would never do and say, "All right, start here." And God is going to lay some heavy, heavy trip on us just because we submitted ourselves to His will. Not so. You don't know the heavenly Father. You have got a wrong and blasphemous concept of God. Who just delights to spend pleasant days together with you. Who is delighted when He sees you happy and joyful. Who wants to see you enriched in all things in Christ.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당신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당신이 내게 너무 잘 대하여 주셨고 많은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복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신이 제게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단순히 말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인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 여기서 시작해라” 하고 말씀하실분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겼으니 그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것이라는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되고 불경한 개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좋은 날들을 같이 보내기를 즐겨하시고 당신이 행복하고 기뻐하는것을 볼때 기뻐 하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안에서 모든것에 부요해지는것을 보고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Now on the other hand, Jesus said concerning Satan, "That he is come to rob and to kill and to destroy." Satan's purpose for you is your destruction, and so as he is guiding the course of the world, it is a destruction derby. It is a course that is leading to destruction. And yet, people so blindly flow along with it. No worries, no concerns, no consideration, "Talk to me later, man, I'm having too great a time." No time to worry about where the path, the flow is leading. And they seem to have no qualms yielding and flowing with the will of Satan, which will lead to their ultimate destruction. Whereas you talk about so many who say, "When I get to my death bed, maybe, you know, I will consider turning my life over to Him. Now I am too busy. I am having fun. I don't want to commit myself to God." And what a wrong concept people have of what it means to surrender your life to the will of God.

반면에, 예수께서는 사탄에 관하여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탄의 목적은 당신을 파괴하는것이며 그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인도할때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길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장님처럼 함께 따라갑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생각하지말고 “이 사람아, 나중에 얘기해, 나는 너무 즐거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걱정할 겨를도 없이 흐름이 이끄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최후의 파괴로 이끄는 사탄의 뜻대로 따라가는 듯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임종에 가까우면 아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뜻인지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once a person does, they find as Jesus said, "I delight to do thy will, O Lord." It becomes the pleasure, the delight, and the thrill of our lives. Now, the other people looking at us can't understand that, because they don't know what is going on inside. "You mean you go to church on Sunday evening and you listen to a Bible study? Man." And they don't know the joy that we hav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s we worship Him and as we sing unto Him our love and our praises and our thanksgiving. And then, as He begins to minister His truth to our heart, and He begins to really speak to us, they don't understand that thrill of God's Word really ministering to our lives and to the things of our lives. And so, looking from the outside in, they can't understand, but once we are on the inside walking in fellowship with God, experiencing His presence and His joy, we understand what it is all about. And it is just a joy and a pleasant delight, to gather with God's people and to just experience God's love and the love within the family of God. And the warmth of God's truth as it just bears witness to our spirits.

But Paul said that we were all once in that boat where Satan was guiding, leading to a shipwreck.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주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삶에 스릴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감사를 노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서 갖는 기쁨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스릴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임재와 기쁨을 체험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사탄이 인도하여 파선으로 이끄는 배를 탔었다고 말합니다.

Among whom also we all had our conversation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2:3)

Now the word *conversation* is an old English word, and we have a new definition for that word today. Conversation, we are talking with each other. This old English word *conversation* doesn't really give you the true meaning of

the Greek word, which is our manner of living. It isn't just our talking, it is our whole manner of life. "Among whom we all had our manner of living, or our lifestyles in times past." What was our lifestyle? Or, what was the manner of life that we lived? What kind of a life were we living? We were living

여기서 우리의 생활방식을 말합니다. 말하는것이 생활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진정한 의미는단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혹은 과거의 우리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방식은 어떠했습니까? 혹은 우리가 살아온 생활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in the lust of our flesh, as we were fulfill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s we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the others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That is, we were living by the lower nature, the animal nature, living after the lust of our flesh, and the lust of our minds. These are the things that were the motivation behind our lives. These are the things that governed our lives in the past. My life was ruled and dominated by the lust of my flesh and by the lust of my mind. I spent my life trying to satisfy my fleshly desires.

즉,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을 좇아서 동물적 본능 즉 천한 본성에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의 배후에서 동기를 주는것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망에 의해 다스려 졌고 지배되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욕망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We read concerning Solomon the king, as he was trying to find meaning in life how that he pursued so many different directions. First of all, he thought that it must lie in riches, which often many people feel. And so he began to amass to himself wealth until he wa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and silver was as common as rocks in Israel. And if you've ever been to Jerusalem, you know how common rocks are around that city. It is the rockiest city in the world.

Imagine in Solomon's day when silver was as common as rocks. And he said, "I looked at all of the wealth and I said, 'How dies the rich man like the fool, this is emptiness.' And so I gave myself to understanding and to wisdom, I said, 'The answer must lie in knowing,' and so I applied myself to wisdom until I was the smartest man in the world. How dies the wise man as a fool, this too is empty, it doesn't satisfy. And so I said, 'It must lie in leaving great monuments,' and so I applied myself to building, and I built all of these great monuments around Jerusalem, and when I looked at all of these great buildings and all I said, 'This too is empty; it doesn't satisfy.'" Until he finally concluded that life was empty and frustrating, there was nothing worthwhile under the sun, that is, after it says, "and all that I did not withhold from myself anything that my heart desired." You see, after the total indulgence of the lust of his flesh, not withholding anything from himself, he came to the conclusion life is empty and frustrating; there is nothing worthwhile under the sun. Sort of concluding, you might as well bomb out and stay drunk, there is nothing else, too much pain to try to face reality.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추구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는 재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때까지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서 은은 돌처럼 흔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 본적이 있다면 그 도시에 돌이 얼마나 흔한 가를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돌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던 솔로몬 왕의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내가 모든 재물을 바라보았고 말하기를 '부자도 우매한자 같이 죽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명철과 지혜를 전념하였으며 '해답은 지식에 있다' 고 하였노라. 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때까지 지혜에 몰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우매자 같이 죽으니 이것도 헛되며 만족을 못준다고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그것은 틀림없이 훌륭한 기념비를 남기는데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주변에 건물을 짓고 이 모든 거대한 기념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들을 볼때 나는 '이것도 헛되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생은 허무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마지막 결론을 맺기까지 해 아래는 가치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그후에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원하는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다음에 인생은 허무하고 좌절케 만드는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 아래는 아무것도 가치있는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탈진하여 주정뱅이가 될수도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현실을 직면하기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Sort of the philosophy that a lot of people have taken today. They have tried everything. They have jaded themselves. They have run the full ten yards, it is still empty. You might as well just, you know, get into a fuzz of drugs or into

the folly of liquor, because there is no sense in trying to be sober. Reality is hopeless. Isn't that what existential philosophy pretty much declares? That reality will lead to despair, therefore you cannot face reality. You have got to take the leap of faith into the second story and hope that you land on something.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자신들을 매우 지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할수있는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도 헛된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차라리 마약을 해서 몽롱해지거나 술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존철학이 외치는것 아닙니까? 그 현실은 절망으로 이끌어 가고 그러므로 현실을 직면할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믿음의 도약을 해서 한층 더 높은곳으로 가야하며 어딘가에 도달하리라는 소망을 가져야합니다.

You have got to just hope that you can have some kind of satisfying experience of truth. Because if you face reality, truth doesn't exist, and thus you will only end in despair. There we were, tripping right along with the crowd, as they were trying to satisfy the lust of their flesh, and the lust of their mind. For we were by nature, that is, we were doing what comes naturally to the fallen man. "We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The fallen nature of man, which is dominated by his flesh, and thus is ruled by his fleshly desires. That is the natural man, apart from Jesus Christ, and you, black is this picture that Paul paints of you and of me.

당신은 만족스러운 진리의 체험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현실을 직면했는데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망으로 끝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육체의 정욕으로 꽂 차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할때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자연적스럽게 행하는것이 타락한 인간의 행실입니다. "우리는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그의 육체의 지배를 받아 육체의 욕망에 지배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자연인이며 바울이 그린 당신과 나의 모습은 검정 색깔입니다.

Now he takes this canvas in which he has painted all of this charcoal slate black, and he begins to splash on it some brilliant colors.

But God (2:4),

바울은 이 캔버스를 취하여 숯같이 검은 색깔로 전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약간의 찬란한 색깔들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But god (2:4),

그러나 하나님 (2:4)

In contrast to the blackness of my own past, now God

나의 어두웠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하나님은

who is rich in mercy (2:4),

긍휼에 풍성하신

Brilliant colors flashed across this black background.

찬란한 색깔들이 어두운 바탕에 번쩍거렸습니다.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sins* (2:4-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God commended His love towards us eve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does not perish but has everlasting life. "But God, rich in His mercy, in His love wherewit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When did God start loving you? So many times we think that God started loving us when we started being loving. When we started being sweet and kind, and you know, generous and good, and when we started just living such a perfect life, God said, "My, isn't that lovely? Aren't they perfect? My, I love them." When did God start loving you? When we were still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God loved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선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 사랑스럽지 않은가? 그들이 완벽하지 않은가? 오, 참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언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 죽어 있었을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God has loved you from eternity,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God didn't love you. There will never be a time when God doesn't love you. But God who is rich in His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has made us alive. Now it is here in the Greek text, finally we have got it.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성경 원본에 있으며 드디어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he ha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for by grace you are saved;) (2:5)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것이라)

So I was once dead because of the trespasses and sins, but through Jesus Christ God has provided the forgiveness of my trespasses and sins. So with the psalmist in Psalm 32, I can say, "Oh how happy is the man,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Oh how happy is the man whose sins are covered. When I tried to hide my guilt I was miserable. The hand of God was heavy on my life. I thought I was going to die. But then I confessed my sin and God forgave me my sin completely. Oh how good it is to have God's forgiveness. Oh how happy is the man."

이전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시편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운을 받은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죄를 감추려고 했을 때 나는 비참했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나는 죽음이 닥쳤다고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God provided the way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having forgiven us our sins we became alive in the spirit, or were born again. Our first birth, the natural life was of the flesh. I was born in a body of flesh, and from the

beginning my fleshly appetites were dominating me. I was a pretty good little kid until my fleshly appetites took over, and then I began to yell until they took care of feeding me. And sometimes if they didn't feed me when I wanted to be fed, I would flail and kick and scream and holler. I was a natural man, dominated by my fleshly needs. Some people never grow beyond that stage. They are still natural men, dominated by their fleshly needs, and if they don't find satisfaction they scream and holler and yell and flail and kick.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중생하여 영적으로 살게되었습니다. 우리의 첫출생은 육신의 삶인 자연인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육체로 태어났고 처음부터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였습니다. 내 육체적인 욕망이 지배하기 전에는 나는 착한 아이였으나 그 이후에는 배고프면 나는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할 때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때리고 차고 소리치며 투덜댔습니다. 나는 육신의 필요에 지배되었던 본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이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육체적 욕망의 필요에 지배를 받는 본능적인 사람이며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들은 소리지르고 때리고 투덜대고 차곤합니다.

But I was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a spiritual birth. A new life, I no longer relate back to Adam, my father after the flesh. But I now relate back to Jesus Christ, my Father after the Spirit. I have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now this spiritual birth, my spirit is now alive, and with my spirit alive I now have fellowship with God. I have been joined back together with God through the Spirit. And His Spirit is bearing witness with my spirit that I am His child, and because of His Spirit bearing witness with my spirit I cry Abba, I cry Father. Very naturally. And I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육체의 욕망을 쫓았던 나의 조상 아담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난것입니다. 이제 내가 영으로 탄생했으므로 내 영이 살았고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영은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And so He has made us alive, alive spiritually, for by grace are we saved. That is, we don't deserve it. That is, we can't earn it. There is no work that you can do that can make you alive spiritually. That is not the result of some great

effort on my part. That is not the result of killing the seven-headed dragon and grabbing the three golden apples. But it is by grace, God's glorious gift of love to me. By grace are you saved.

Now, not only has He made me alive,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벌어 드릴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이룬 훌륭한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곱개의 머리가 달린 용을 죽이고 세 개의 금 사과를 얻은것에 대한 댓가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은혜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But he has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Or in the heavenlies. You notice *places* is italicized.

So it's far more than just saving me from my sins, it is making me alive unto God and then raising me up into the heavenly levels. Where God now seats me together in Christ in these heavenly places, or in the heavenlies. This new walk and life that I have in the Spirit, this resurrected life of Jesus Christ. The purpose:

혹은 하늘에.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는 장소를 나타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능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이러한 하늘에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리를 같이하실 하늘 나라의 수준까지 나를 올리시는것입니다. 성령안에서 가지는 행함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과 같습니다. 그 목적은: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o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and his kindness toward us, through Christ Jesus (2:7).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Now, notice verse 5, "with Christ," verse 6, "in Christ Jesus," verse 7, "through Christ Jesus." All of these things that God has done, He has done for us, in, and through, and by Jesus Christ.

이제 주목 하십시오,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신 것입니다.

Now the glorious future that awaits us, as Paul prayed in chapter 1, and we studied last week. He prayed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their calling. God has called you to be His child.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 means throughout the endless ages to come you are going to be dwelling with God in His eternal kingdom as God is revealing unto you the exceeding richness of His mercy and of His kindness towards you through Christ Jesus.

일장에서 바울이 기도할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장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공훈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면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세세토록 살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The psalmist said,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so high is God's mercies towards those who fear Him." And God throughout eternity is going to be revealing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mercy and of His kindness, these things that He has given and provided and done for you through Jesus Christ. You will never discover it all. Eternity isn't long enough. Throughout all eternity, God's grace and love and mercy being revealed.

시편기자는 말했습니다, “땅 위에 하늘이 높은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높으시도다.” 그리고 영원을 걸쳐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그의 공훈과 인자하심을 나타낼것이며 이러한것들을 당신에게 주셨고 공급하셨으며 또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 전부를 발견하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하면 영원도 부족할것입니다. 영원을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훈을 나타내실것입니다.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3:8):

너희 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요

What not of yourselves? Faith. You say, "Well, I believe God. Look at me, I believe." No, no. That not of yourself, the faith didn't come from you. Even the faith

무엇이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좀 봐. 나는 믿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오는게 아닙니다. 믿음이 당신에게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믿음 조차도

was the gift of God (2:8):

하나님의 선물이라

Do you remember when the Midianites had covered the land like grasshoppers? Were ripping off the crops from the children of Israel, they were hiding their food in caves and all. And Gideon was in a cave as he was threshing the wheat to hide from the Midianites, and the angel of the Lord came to him and said, "Gideon, go and deliver the children of Israel from the oppression of the Midianites." And he said, "Who are you? And you have got the wrong address. My father is a nobody and I am the least in my father's household. You can't be meaning me." And the Lord said, "Yes, I do mean you." "Well, I would like to know that for sure. Let me put out a fleece of wool. And in the morning if it is wet and the ground is dry, then I will know that it is you." And so in the morning when the fleece was wet and the ground was dry, he said, "Now I want to make sure about this. Tomorrow morning let the ground be wet and the fleece dry." I might be stumbling onto a phenomena of nature that I don't understand. But the morning when it was reversed, then he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it was God.

당신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육지를 덮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농작물을 빼앗아 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식들을 동굴에 모두 숨겼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 부터 숨어 동굴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기드온,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박에서 구원하라"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무 명망도 없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것이 진실일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렇다, 바로 너를 말하는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놓겠나이다. 만일 아침에 양털은 젖었고 땅이 마르게하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참인줄 알겠나이다." 그래서 아침에 양털은 젖었고 땅이 말랐는것을 보고 그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땅은 젖고 양털이 마르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 걸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그것이 뒤 바뀐것을 보고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 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he blew the trumpet in Israel and gathered together 32,000 men to face the 135,000 Midianites. And God said Gideon, "The men that are with you are too many, because I know the heart of this people. And if I would deliver the Midianites into the hands of the 32,000, they would go around glorying in themselves. So go out and tell all of the men who are afraid to go to war to go home." Gideon went out and faced his troops and said, "All right, all of you that are afraid to go to battle, you can go on home." Twenty-two thousand of them turned on their heel and left. Left him with 10,000 men to face the 135,000 Midianites. And the Lord said, "Gideon." "Yes, Lord." "The men that are with you are too many. I know the heart of this people. If I would deliver the Midianites in the hands of the 10,000, they would go around boasting in themselves and glorying in themselves. Take them down to the stream and let them get a drink of water. And all of those that get down and put their face in the water, send them home. Those that pick it up in their hands and drink out of the hands, then with these will I deliver the Midianites into the hands of Israel." And Gideon took them down to the stream and 9,700 of them got down on their knees and put their face in the water and began to drink and 300 of them picked it up in their hands. And so Gideon took the 300. Now, what was the purpose of God? To keep the men from glorying or boasting in what God was going to do.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었고, 32,000명을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만약 미디안 사람들을 32,000명의 손에 붙인다면, 그들은 그 자신들을 자랑하며 두루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전쟁에 가기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말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나가서 군대를 향하여 "자, 이제, 이 중 전쟁에 나가기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한 만 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드온"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 주님"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안다. 내가 만약 미디안 사람들을 만 명의 손에 붙인다면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뽐내면서 자신들을 자랑할것이다. 그들은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해라. 그 중 몸을 굽혀 얼굴을 물 속에 담그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러나 그 중 그들의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내가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부치겠노라."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에 데려갔는데 그 중 9,700명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얼굴을 물 속에 넣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중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일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을 구하고 뽐내는것을 막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Ephesians 2 (Part 2)

God has done a wonderful thing for us. He has brought us salvation and eternal life and He doesn't want us boasting in what we have done. In fact, He doesn't want any flesh to glory in His sight. So even the faith by which we are saved God gives to us as a gift. So I can't even boast about my believing the truth of God. "Well, the truth came to me and I examined the truth, and I decided I am going to believe it." Nope,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f. It is a gift of God."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그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도 그의 앞에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된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내게 다가왔고, 그것을 시험해 본 다음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It is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2:9).

행위에서 난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You see, God knows the tendency of our old nature to want to receive glory. That's a part of that sinful nature, that is the very thing that tripped up Satan. "I'm going to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heaven. I'm going to sit in the congregation in the sides of the north. I'm going to ascend into the height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I want people to recognize and worship and glory in me."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Isaiah 14:12) Who did exalt thyself," looking for glory.

보다시피,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을 잘 알십니다. 그것은 죄성이며 그것은 사탄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못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는 북극 집회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자와 비기리라. 못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경배하며 영광돌리기를 원하노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12)

God knows that is a part of our nature, and therefore He placed salvation outside of our capacity, outside of our ability. He made our salvation on the basis of His grace, His work, His work through Jesus Christ and my believing that work. And then He gave me the faith to believe it. He drew me unto Himself, placed the faith in my heart to believe His truth, and granted unto me through His grace this glorious gift of eternal life.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That faith by which you were saved. "It is not of works, [your salvation,] lest any man should boast."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본성의 한 부분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의 한계 밖에 구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과 그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그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으며 그의 은혜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당신의 구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The Greek word translated *workmanship* is *poiema*, from which we get our English word *poem*. You are His work. You are His poem. A poem is a thing of grace, a thing of beauty. God wants your life to be a thing of grace and a thing of beauty. And as God works in your life, it will become a thing of grace and of beauty; you are His poem.

"만드신 바"란 말은 그리스 단어 포이마(*poiema*)에서 번역된 말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시(*poem*)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그의 시입니다. 시는 은혜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인생은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시입니다.

The poet seeks to express Himself in beautiful terms. He seeks to express beauty in attractive terms. God is seeking to express Himself, and your life becomes that expression as God works in you. You are His work, as God works in your life conforming you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you then become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world around you--the expression of God.

시인은 아름다운 말로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는 매력적인 단어들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실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Jesus, it says, was the express image of His glory. He said one day to His disciples, "If you have seen the Father you have seen Me," or...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rather. Philip said, "Show us the Father and we will be satisfied."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Don't you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And the works that I do, I do not of Myself, but of the Father that dwells in Me, He doeth the works. Believest thou then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for the very works' sake" (John 14:8-11).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느니라." 또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것을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 14:8-11)

So God wants you to be the expression of Himself to this world. And that is the purpose of God's work in your life, to conform you into the image of Jesus Christ. Now, as we get to the fourth chapter of Ephesians, Paul will tell us that God has appointed in the church pastor-teachers, evangelists, prophets, apostles, and not in that order. He put pastor-teachers last, but I like to reverse the order since I am a pastor-teacher.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들어 갈때 바울은 하나님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교회에 목사-교사, 전도자, 선지자, 사도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제일 마지막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목사님-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꺼꾸로 바꾸고 싶습니다.

But their purpose was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until we all came into the unity of the faith,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unto the complete or fully

mature man, u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the image of Christ. You see, this is God's work in you: conform you into the image of Christ.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시다시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안에서 하시는 일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것입니다.

Paul, writing to the Corinthians, said, "We all, with open face as we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changed from glory to glory even into that same image" (II Corinthians 3:18). God expressing Himself through you as God knocks off the rough edges and as God smooths out those rough spots. His whole purpose of His work in my life is to conform me into the image of Christ, that He might reveal Himself through me to the world. His love through me, His grace through me, His kindness through me.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하나님은 당신의 거친 언저리를 깎고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내 삶에서 그가 역사하시는 전체적인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보여주는것입니다.

Now, a lot of the times as God is doing His work in me and He begins to chip off some of those clumsy edges, I begin to scream. I don't always like that work of God. But it is important that I submit to that work of God. I don't always understand it, "Lord, why did You chip that one off? I thought that it looked pretty good." I don't always understand why certain hard places have come into my life, but God is working. It is important that I know this. Because as I know this, then I can yield to these things, and I don't fight them. I say, "Lord, my life is Yours." If any man suffer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let him commit the keeping of his soul unto Him as a wise Creator. "God, my life is in Your hands. You do what You know best and what You see best. Lord, I accept these things that are coming my way. You work, Lord, Your work in me, that You might reveal Yourself through me."

You are His poiema.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뭇시 없는 가장자리를 깎아 내리기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나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왜 그 부분을 깎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힘든 입장이 항상 알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것들과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의 영혼을 지혜로운 창조자인 주님께 맡기게 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시에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 하시옵소서.”

당신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created in Christ Jesus unto good works, which God hath before ordaine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2:10).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선한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has already determined, foreordained, that work that you are to accomplish for His glory. God has a plan and a purpose for your life.

하나님은 당신이 그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벌써 결정하셨고 그것을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You remember when Mordecai sent the message into Esther after she had said, "I can't just go in and see my husband any time I want. We have got laws here in Persia, and unless he calls me, I really can't go into see him. And if I would presume to go in and see him, if he doesn't hold the golden scepter, they will take my head off." And her cousin Mordecai sent back a message and said, "How do you know but what God hasn't brought you in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The whole background, the beauty contest where she was chosen to be the new queen, the deposing of the old queen Vashti and all of these circumstances. "How do you know that God isn't working and hasn't been working all of the way through up to this point to prepare you for this precise moment in history to bring deliverance for God's people? Now don't think within yourself that if this edict goes through you are going to escape, or that the edict can actually go through, for deliverance will arise from another quarter,

God is going to do His work.” But you will be the loser if God has chosen to use you to do that work and you fail.

당신은 에스더가 “나는 아무때나 내가 하고싶다고 들어가서 내 남편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페르시아있어 그가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보러 들어간다면 그가 금홀을 들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일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들여보낸 때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너로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전체적인 배경은 미녀 대회에서 그녀가 새 왕후로 뽑힌것과 늙은 왕후 바스다가 폐위된것과 이러한 모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역사의 정확한 순간을 위하여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았음을 어떻게 압니까? 만일 이 조서가 나가면 당신이 도망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조서가 나가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그들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마음속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당신을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당신은 패자가 될것입니다.

So God has been preparing you. How do you know but this isn't what God has been preparing you for? As God works in our life, we can know that God has a purpose and a plan. He doesn't just work happenstance in us. It isn't just some kind of a capricious act of God that I have been through these severe testings or trials. It is a part of God's plan in preparing me to do the work that God has already decided that I should do for the glory of His kingdom.

주님은 당신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때 우리는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연한 일을 하시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겪어온 혹독한 시험이나 시련들이 주님의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해놓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So I can look back in my life and I can see how God was preparing me and working in me to prepare me for this place that I am today. I can go back, all the way back, actually, to my birth and even before my birth, to see how God had His hand upon my life even in the prenatal state. As He was preparing me for the work that He wanted me to accomplish for His glory some day. I can see that preparation in my early childhood as God gave me such a godly mother, who before I was born, when my sister, for all practical purposes, had died, made a covenant with God and said, "God, if You will spare my little daughter's life, if You will give me my little girl back to me, I will serve You and minister for You the rest of my life." And how God miraculously healed my sister instantly and brought her back to life, she started breathing again. And two months later when

I was born, my mother said, "Father, I will fulfill my vow to You through my son. I will dedicate him to serve You."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 아주 멀리, 내가 태어날 때와 심지어 태어나기 전까지 주님이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올 그의 영광을 내가 성취하기를 바라시기에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나는 그 준비를 내가 어릴 적 주님이 내게 참으로 경건한 어머니를 보내주셨을 때부터 볼 수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누나가 그 참 목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제 딸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제 딸을 돌려 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섬기며 제 평생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누나를 기적으로 단번에 낮게 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녀는 숨을 다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제가 한 서약을 이행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도록 그를 바치겠습니다."

Thus, from my earliest memories my mother was teaching me to memorize the scriptures. Following me around when I played, she let me be a normal boy. Play ball and everything else, but as I was a child she would follow me around having me recite scriptures. Bedtime I never heard of Goldilocks or Red Riding Hood until I grew up. But I knew all about David, and Moses, and Joshua and Paul. These were my bedtime stories. God was preparing.

그래서 나의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성서를 외우도록 가르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놀 때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내가 보통 아이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공놀이도 하고 다른 모든 것도 했지만 내가 어릴때 어머니는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성서를 암송하게 하셨습니다. 잠잘 때도 나는 **goldilocks**나 **red riding hood**를 잠들기 전까지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는 다윗, 모세, 요셉과 바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잠잘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Our early years of ministry, those times of great frustration, those times of failure, those times of hardship, those times of learning to trust God for the evening meal. When we would be absolutely, that is an overstatement, when we would be almost broke, because one night when we came right down to it, we were almost broke. We went through Kay's purses and my pants pockets and our dresser drawers, and we did find thirty-seven cents. And we headed out to the store with thirty-seven cents to buy our evening meal.

많은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배움의 시기인 목회의 초기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 주님을 의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무일푼 상태였고 어느날 저녁엔 정말 무

일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제 아내(kay) 의 지갑과 내 바지 주머니와 옷장을 뒤져 37센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37센트를 가지고 시장으로 저녁 식사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Challenged by how nutritious a meal that we could purchase for thirty-seven cents. How balanced and nutritious, it was a real challenge, and we made it. We had a bunch of carrots and a can of pork and beans. And when we laid them on the counter the guy totaled them up he said, "Thirty-seven cents." I had it figured out. I laid the cash on the counter and we started out the door. And he called us back, and he said, "I am sorry. I have been intending for a long time to do something for you kids, and here, I want you to take this," and he reached under the counter and gave us a ten dollar grocery certificate. I told Kay, "Let's go over to the meat counter." And I said to Kay to pick out two of the best t-bones, God is treating tonight. We are going to eat steak.

37센트로 얼마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살 수 있을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균형도 맞고 영양가도 있는 음식을 사는것은 진정한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근 한 묶음과 돼지고기와 콩이든 한 깡통을 샀습니다. 우리가 계산대에 그것들을 올려 놓았을 때, 계산하는 남자 직원이 계산하면서 "37센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계산을 다 했기때문에 카운터에 돈을 놓고 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우리를 다시 부르더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여기 이걸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카운터 밑에서 10불짜리 식품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나는 케이(kay) 에게 "고기 판매대로 가자." 고 말하고, 가장 좋은 티본 스테이크를 2개를 골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위해 스테이크를 사주시니 우리가 먹겠습니다.

God was in it. God was preparing us to trust Him for the evening meal. Preparing us to just believe in Him and to know that He would supply the needs. Teaching us to be careful and frugal with His funds. Teaching us to be wise and careful as we spent His funds. All of it was important and necessary preparation, for God had in mind the whole while the ministry that we are experiencing today. I didn't have any idea what God had in mind. I had ambitions; hopefully one day I would have a church of 250 people, that was my great ambition in life. I was tired of little churches of under a hundred, because they could never support the needs of the family. So I worked as Paul, laboring with my own hands so that we would not be chargeable to the churches.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분만을 믿으면 그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것을 알도록 우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주시는 자금을 가지고

소박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의 자금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사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시키시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준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250명의 교인의 교회를 가지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내 생애에 큰 야망이었습니다. 나는 100명 이하의 교인의 작은 교회 생활에 지쳤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의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교회에 신세를 질 수 없어서 내 손으로 직접 일을 했습니다.

When we first began Calvary Chapel we worked, laboring with our own hands. And I was prepared to continue to work, but God had other things in mind--far and above anything we had ever dreamed. The work that God has in mind for you to do for Him.

우리가 처음으로 갈보리채플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않았던 다른 놀라운 일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Now, I do believe that we can check out of God's program if we desire. I think that we can say, "Okay Lord, that is it. I have had it. I don't want to go through this anymore. I am going to take another path." I think that we can actually miss out on that plan of God that He has ordained for our future. Not that we are going to miss salvation, don't misunderstand me now. That is not the issue at all. The issue is God's perfect plan for your life, the work that God has before ordained that you should accomplish for His glory. I think that you can miss that. If you rebel against the work that God is seeking to do in your life today to prepare you for the work. I do believe that God does prepare the instrument before He uses the instrument.

이제,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점검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 주님. 저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 더 이상 거둬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해놓으신 계획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놓치려는 것이 아니니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취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일, 즉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입니다. 당신이 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당신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일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 도구를 준비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It is the days of preparation we often despise, though the Bible tells us, "Do not despise the days of preparation." The days of the small things, "Lord, I want to get on to the big things, the big work You have got." No, no. It is necessary that God first work in me before God can work through me. That is why we are told in the scriptures to count it all joy when we go through some real hard testings. That is why we are told to rejoice in tribulation for God is working in you, because God wants to work through you. He has got a plan for you, the work that He wants you to accomplish. Now, I don't think that I have arrived, I think that God has yet to do greater work for me to accomplish for His glory. It is exciting to me each day to see the new opportunities that God brings into our path, in the expanding of the ministry as we seek to do His work. So God still prepares man. I haven't arrived by a long shot, but I am on the way. One day when I do arrive, I will look around and I will see Paul and John, and I will be in glory. When I have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have been apprehended. Paul was very conscious of the fact that when the Lord called him, God had a plan in mind and he said, "I am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Still on the road.

성경은 "준비하는 날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날들을 종종 없신여깁니다.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 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것, 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하셔야 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나도 아직 다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성취 해야 할 더 큰 일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더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하시니 매일이 내게는 벽찬 나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내가 아직까지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어느날 내가 도착하게 되면 내가 주변을 둘러보고 바울과 요한도 만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잡힌바 된 것을 잡을 때 영광 가운데 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전히 쫓아 가는 중에 있습니다.

There is still something to be done, God still has a purpose and a work for me yet to fulfill. When I have completed, when I have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do you think God is going to leave me in this sin-

cursed world any longer? No, He loves me too much. He is going to take me to be with Him in the eternal glories of His kingdom.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은 아직까지 목적과 내가 이행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완성을 할 때, 내가 잡힌바를 잡을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저주 받은 세상에 그냥 버려두실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영원항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실것입니다.

Wherefore remember, that you in time past as a Gentile in the flesh, were called the Uncircumcision by that which is called the Circumcision in the flesh made by hands (2: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자들이라

So remember as a Gentile you were totally excluded by the Jews. Excluded to salvation.

이방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당했고. 구원에서 제외 되었었습니다.

That at that time you were without Christ, being aliens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from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2: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2:12)

Now he is going back again. You, before the coming of Jesus Christ into your life--a real separation, a real wall between you and God, you and the people of God. You were without Christ, you were an alien and strangers from the covenants of promise and you had no hope, for you were without God in the world. That is one of the saddest, most tragic pictures of mankind. No hope, without God in the world, without Christ, without hope, without God.

이제 그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 또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라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It is a tragic thing to try to exist in a hopeless state. One of the greatest things the Bible does for us, it gives us hope, even in a world that is deteriorating around us, there is hope. In fact, the more the world deteriorates the greater the hope becomes.

Do you know what is the latest conclusion of the most brilliant economists in the world? Do you know that they declare to be the only hope for the world at this point? They are now declaring that the only hope for the world is a unified monetary system. In their latest writings, publications, they are beginning to espouse this as the only salvation for the world. The only hope for the world is a unified monetary system, worldwide. That is the only thing that will cause mankind to lay down their arms, because we will all realize that we are having the economic problems in trying to build these tremendous armaments and we'll all be joined together in an economic endeavor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So we have got to have a unified monetary worldwide monetary system.

희망 없는 나라에 존재하려고 애쓰는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위대한 일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더 많이 타락하면 할수록 그 소망은 더욱 커 집니다.

당신은 이세상의 가장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것이라고 선포한 것을 아는가? 그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금융의 통합제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근에 쓴 글이나 간행물에서 이것으로 이세상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길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가 무기를 내려 놓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모두가 엄청난 군사력을 쌓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통합 금융제도를 가져야한다는것입니다.

Interesting that they would come upon that as the only hope of the world. And when that is established they will be hailing that as the salvation of the world. It is interesting for us as children of God to realize that the Bible says, that is exactly what we will be established by the antichrist and will cause him to be hailed as the savior of the world, is when he brings to pass a unified, monetary system worldwide. And so the world is talking about these things and, "This is our only hope, and we can't do this. And we've had it and all." And they are

without hope, really, because whoever could put together a worldwide unified monetary system and while they are talking about the doom and gloom we are saying, "All right it is getting close. As soon as they get that thing integrated, I am going to be gone." We have this glorious hope in Christ. For the world is without Christ, it is without hope. Where it is without God, it is without hope.

그들이 그것을 이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립되면 그들이 세상을 구원한것으로 환영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의 구원자로 환영을 받게되리라는 성경말씀을 깨닫게 되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통합 금융제도를 만들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계적으로 연합 금융체제를 만들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가 가깝다. 그들이 그 일을 이루자마자 나는 떠나고 없을것이다" 라고 말할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소망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곳엔 소망도 없습니다.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were once far off you've been brought nigh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2:13).

이제는 진네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2:13).

You were once an alien; now you have been made a part of the family of God. You were once a stranger; now you are at home in the kingdom.

당신이 한때는 외국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때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에 들어 왔습니다.

For he is our peace (2:14),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14),

Not, "He will bring us peace." He is our pe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것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who has made both one (2:14),

둘로 하나를 만드사 (2:14),

That is, both the Jew and the Greek, or the Jew and the Gentile, He has made us both one.

유대인과 헤라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and broke down that wall of partition that used to separate us; having abolished in his flesh that enmity that once existed, even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the ordinances; in order that he may make in himself of the two one new man, so making peace (2:14-15);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것 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2:14-15);

So Jesus took the two diverse and divergent systems, the Jew who was trying to under the law to be righteous before God, and failing; the Gentile who was totally alienated because he wasn't even close by way of the law. And this tremendous difference that existed between the Jew under the law, and the Gentile without a law, both of them failing to please God or to come into fellowship with God. And Jesus broke down this barrier, this wall that existed between man and mankind and He has made it all one in Him. So Jesus the common denominator, and He is one way by which man can come to God. The Gentile apart from the law, the Jew within the law system, all have to come this new route that Jesus has established. So that as we all come by the same path through Jesus Christ, we become one. And no longer does this great difference exist between the Jew and the Gentile. So in making from the two, one new man and thus, He has made peace.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다른 체계를 취하셨습,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으나 실패한 유대인과 율법과는 아주 먼 완전히 외입이었던 이방인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율법 밖에 있었던 양인들의 차이는 굉장한 것이었지만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에 실패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과 인류 사이에 있던 장벽을 무너 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 분모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을 떠난 이방인이나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께서 이루신 이 새 길로 와야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며 새로운 살모오 만들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That he might reconcile both unto God in the one body by the cross, having slain the enmity thereby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16);

Or, in the cross He fulfilled the law. The righteous demands of the law were fulfill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The law righteously demanded that the sinning soul should die. Now, under the ordinances they had the provision that they could take an animal as a substitute and thus cover their sins. Bu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had to be satisfied. It was satisfied in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so there He brought an end to the law and its authority over man, because the law has now been totally satisfied through His death. And now through His death He has reconciled both--that is, the Jew who could not keep the law, or the Gentile who had no relationship to the law. We have both been reconciled to God in one body of Christ by the cross, and there He put an end to this enmity that existed between the two.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공정한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은 정당하게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을것을 요구합니다. 의식에 따라 동물을 대속물로 취하여 그들의 죄를 가릴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공의는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족되었고 그것으로 율법과 그것의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종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지킬수 없었던 유대인과 율법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이방인을 그가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원수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And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off, and to them which were close (2:17).

또 오셔서 먼데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2:17).

The same message He preaches to all men. Whether you were far, or near.

너희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는 모든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by one Spirit unto the Father (2: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2:18).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I Timothy 2:5). And you have no access to God apart from Jesus Christ. And I don't care how I am accused of being narrow in that statement. I am only stating to you what the scriptures declare.

You can only have access to God through Jesus Christ. Yes, it is a straight gate and it is a narrow path, but it leads to eternal life. Broad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path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go in. There is the flow, the flow of the world. But straigh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So Christ has made the way by which man can come to God, it is a road that is marked by blood, but it brings us into fellowship and in communion with the Father.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2: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진술에서 속이 좁다고 책망을 받는다 할찌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선언하는것을 말할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 가는자들이 많습니다. 흐름이 있고 또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들어 가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 찾는 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든 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So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foreigners, but you have been made a fellow citizen with the saints, and of the household of God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2:19);

So it is not only Christ settling down and making Himself at home in your hearts, but you just being a part of the household of God, at home with God.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느님이 그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가족의 한 일부분으로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And you are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자라 (2:20)

Now, these are not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but the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We are not really built up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They are not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are built, but we are built upon the message of the apostles. That is the foundation. Paul said, "No other foundation have we then this which is all 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Peter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said, "That is good Peter. God revealed that to you, and upon this rock I am going to build my church."

He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are built, the message of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that God has provided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And that He is the way by which we might come to God. That is the foundation, laid by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in their teaching and in their ministry.

이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신약 교회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초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메시지위에 세워졌습니니다. 그것이 기반입니다. 바울은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고 말했습니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좋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이를 네게 알게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고 하셨습니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워지는 기초이시며 그 기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놓은 기초입니다.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2:20);

예수께서 친히 모퉁돌이 되셨느니라 (2:20);

God is building a habitation for Himself. A body in which to dwell, the body of Christ. The body of believers. I become a part of that building of God. You remember Jesus said,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We are the building of God. We have been built upon that foundation laid by the apostles and the prophets,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is building is built. You remember that Peter, standing before the Sanhedrin, quoted that particular Psalm 118 referring to Jesus Christ. He said, "This is the stone which was set of nought by you builders but the same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this is the work of Go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Psalm 118.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He was the stone that was set of nought by the builders. They rejected Him. He came 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Those leaders of the Jewish religion rejected the chief cornerstone.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거할곳을 지으십니다. 그 안에 거할수 있는 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는 사람들의 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건물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신것을 기억 하시겠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한 기초위에 세워졌습니다. 공회 앞에서 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정한 시편 118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는 건축자의 버린바 되었던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받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퉁이 돌을 거절하고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that in the building of the temple of Solomon, you remember not the sound of an axe or a hammer was heard, no sound of iron, but all of the stones quarried away from the building, carried to the building perfectly carved out and then just set in without even the use of mortar. Perfectly carved and fit together. So they had the architect and he drew the blueprints for each stone, and they would mark them and put them in their position within the temple as they were building it. And the story goes that there came from the quarry a stone that did not have its mark, and so the builders could not figure where the stone went. So they finally just cast it aside, figured it was a mistake from the quarry. When the temple was complete, they sent to the quarry and they said, "Where is the chief cornerstone?" The quarry sent back and said, "We already sent it along time ago." They sent back and said, "We have not received it. It is not here." They said, "We have got our invoice and you signed it. It is there." Finally, over in the bushes that had grown over the thing, someone dug it out and said, "There is a stone over here, could this be it?" Sure enough, it was the chief cornerstone of the building that the builders had neglected and cast aside. And they found out this is the one it fits; it is the chief cornerstone.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때 있었던 일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 하실것입니다. 도끼나 망치의 또는 쇠부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돌은 건축장에서 멀리 떨어진곳에서 채석을 하였으며 완벽하게 다듬은 돌을 공사장으로 옮겨

갔으며 어떤 반죽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각 돌마다 설계사가 있었고 청 사진까지 그려서 돌에 표시를 했으며 성전을 지을때 각 돌을 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채석장에서 표시가 없는 돌이 왔습니다. 건축자들은 그것을 어디에 놓아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던져 두고 그것은 채석장의 실수로 온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완성 되었을때 사람을 채석장에 보내어 “모퉁이 돌이 어디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돌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것을 벌써 보냈노라”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다시 돌려 보내면서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았고 여기에 없노라”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석장에서 “우리는 계산서가 여기 있고 당신들이 서명했으니 그것이 거기에 있을거요.” 드디어 그 돌주변에 수풀이 자라서 덮여 있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파헤쳐서 하는 말이 “여기에 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건축자들이 무시하고 옆에 던져 두었던 그 건물에 들어갈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이 맞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So Jesus Christ, set of nought by the religious leaders, by the builders, but God has made Him to be the chief cornerstone. This is the work of Go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and neither is there salvation, Peter said, in any other, because there is no other name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The chief cornerstone upon which the whole thing is built.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건축업자들에 의해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누에 기이한 바이며 베드로가 말한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것은 모퉁이 돌 위에 건축됩니다.

In whom all of the building is fitly framed and grows unto the holy temple in the Lord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1):

So when you have Christ, building on Him, the whole building goes together fitly framed together the holy temple in the Lord.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셨을때 그 위에 건축하며 그 건물은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잘 맞추어져 갑니다.

In whom ye also are built together as the house of God through the Spirit (2:22).

너희도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2).

Again,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The house of God where He comes to dwell among His people. How glorious it is to be able to gather together with the family of God and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God's Spirit as He is working to build this habitation, not a physical building, but our lives that are being knit together, fit together in this whole plan of God, this glorious building where God will reveal Himself to His people, and through His people to the world.

다시 한번,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집은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지으실때 그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엮어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잘 맞는 건물을 세우실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수 있게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건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곳이며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타 내실것입니다.

Thank you, Father, for that wonderful work of your Holy Spirit in our hearts and lives. For that grace whereby we were saved. For Your work in us as You prepare us to do Your work, for Your Spirit drawing us near when we were without hope and was without Christ, and was without God in this world. For making us a part of the family of God. Fitting us together as we are built upon Christ. Oh Lord, You are beautiful, and we love Your work. Amen.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활에 성령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 시키실때 를 구원하는 당신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하시면서 역사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를 당신 곁으로 끌어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지어 질때 함께 잘 맞춰집니다. 오 주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랑합니다. 아멘.

You are His workmanship created together in Christ Jesus unto the good works that God has foreordained that you should walk in them. God has a plan for your life this week. God is working in you. God wants to work through you. As you yield yourself, your lives to God, you will begin to discover that which

God intended and purposed for you to do for His glory. But you can only discover it by yielding to Him.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한일을 행하시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번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뜻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 즉 당신의 삶을 그에게 맡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이 복종함으로 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As a potter works with the clay, and as he begins his work with the clay, in his mind he has a vessel that he intends to make out of that lump of clay. To take that shapeless bit of mud and to carefully work with it until he forms a vessel that he has in his mind to form from this bit of clay. So God takes your life as a bit of clay and has in His mind a vessel that He wishes to form in order that it might perform a specific work or function. God knows exactly what function He wants you to fulfill within the body.

토기 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의 일을 하듯이, 그의 맘속엔 그날 진흙 덩어리로 만들기를 바라는 그릇이 맘속에 있습니다. 그는 이 진흙 한덩어리로 그 마음 속에 생각했던 그릇의 형상을 만들때 까지 모양 없는 흙을 한점 뜯어서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덩어리의 흙인 당신을 취하여 특정한 일이나 기능을 하도록 그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몸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Now that clay has really no choice of its destiny. Nor does it have necessarily any knowledge of its destiny until, as the potter begins to form it, it can begin to understand what its destiny is going to be as you begin to look at its shape. I begin to realize that God is preparing me for this, or is preparing me for that, and I begin to understand what God is preparing me for as I see the thing take form and take shape. But the only way I can really discover what God has in mind for me is to remain completely yielded to His touch. The moment I resist and stiffen, the work will be marred in the hands of the potter, and many times He has to start all over again. Take that piece of clay, and here I go again back to zero. I hope I listen this time. The wheel starts turning, "Oh Lord, what are you doing now?" Boy, how many times I was back to zero. Just a blob again. But in time we learn that the potter knows best. Just to yield our lives to the touch of

God. To let God work in us, that we might do the work that He has planned for us.

So God bless you as He works in your life this week. Making of you an instrument that He might use to bring glory to His name.

그 진흙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 때까지 결과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점점 형태를 갖추갈때 비로소 그의 결과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나를 이것을 혹은 저것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형태가 어떠한 모양인가를 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참으로 발견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어루 만지심에 완전히 복종하여 그에게 나머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고 고집부리는 순간 토기장이의 손에서 작품은 망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그 진흙덩이를 취하여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듣길 바랍니다. 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참, 몇 번이나 원점으로 돌아갔는고. 또 원점으로 돌아갔네. 하지만 때가 되면 토기장이가 가장 잘 아시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당신의 생활에서 역사 하실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신을 도구로 만들고 계십니다.